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5. 11. 02. 보도일자: 2025. 11. 03.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DMZ 문화예술공간 통, 정기현 작가의 '변방을 우짚는 유령들' 전시 개최	3쪽	3	http://www.ggcf.kr/	부서 :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담당 : 박소현 전화 : 031-853-7873

DMZ 문화예술공간 통, 정기현 작가의 '변방을 우짚는 유령들' 전시 개최

- ▶ 독일-한국 간을 가로지르는 통찰을 보여주는 전시 11월 18일부터 개최
- ▶ 역사의 유령적인 것들이 돌아오는 형식이 얼마나 내밀하고 역설적인가를 질문하는 정기현 작가의 작품 선보여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지역 문화공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과 예술(박준식 대표)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파주 DMZ 문화예술공간 통에서 정기현 작가의 <변방을 우짚는 유령들>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역사의 유령적인 것들이 돌아오는 형식이 얼마나 내밀하고 역설적인가를 질문한다. 오브제는 신문 벙커 속의 곰팡이 냄새 그리고 패악을 떠는 대남방송이며 전시의 중핵은 오래된 신문이다. 독일 유학시절 베를린 국방부 본부 건물 해체 작업에 참여했을 당시 벽지 분리과정에서 채집(개인소장)된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신문이다,

정기현 작가의 작업은 헤겔의 역사철학이 최종 귀착하고 그와 엇갈려 합스부르크 피드백에 따른 나치즘의 그림자가 어른대던 시대, 마치 한스 하케의 쇠석들 밟는 소리가 내재한 형식이다. 마치 "서울에서 베를린까지"(백남준)와 같은 가로지르기 감각이 있다.

역사주의 종언 이후의 폐허 시대를 살면서 그 역사주의 정초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유령적인 것들이 DMZ 아랫동네에 출몰하는 것. 그로부터 독일-한국 사이 간-역사적 조망을 갖고서 벙커 속의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마치 프루스트의 과자 한입처럼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을 귀환시킨다.

나아가 대남방송의 확성기 소리를 바이마르 신문뭉치처럼 분해해 보니 귀신소리 여우소리 늑대소리 아스라한 악몽소리로 레이어화 한다. 우리가 추앙하는 시인 백석의 여우난곶죽 소리다. 소리 고문이 알고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詩心 가득한 소리다.

정기현 작가는 뒤틀린 파이프 속에 원형적이고 뫼비우스 띠처럼 장치된 설치 작품을 발표한 바, 이처럼 시간적인 것들이 어떻게 교차하면서 굴절된 형식으로 귀환하는가를 이미 드러낸 바 있다. 시간성의 비밀 관절을 스스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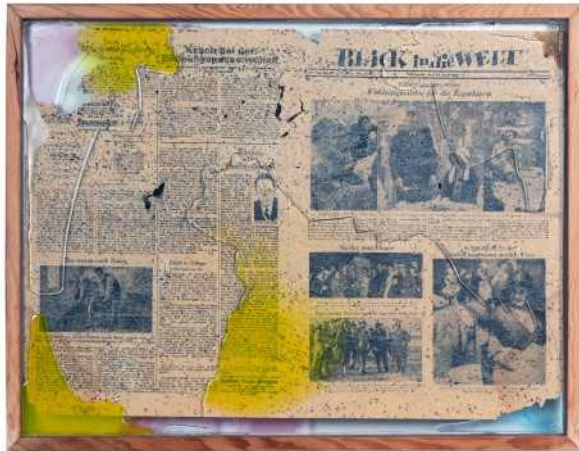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그러한 작가의 시간관 위에 신문 작업, 후각적 이미지, 청지각적 이미지가 역사의 유령적인 것들을 소환하고 독일-한국 간을 가로지르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DMZ라는 '중간지대'에서 습관적인 클리셰를 벗어나는 순간, 어떤 감각의 흐름들로 각성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

경기문화재단은 지역 기반의 거점형 문화공간 재생과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DMZ 문화예술공간 통'은 파주 비무장 지대 내부에 거점을 두고, 지역의 자연생태, 문화자원을 조사·연구하면서 다채로운 전시·체험 등을 통해 그 가치를 공유하며 파주 DMZ의 문화정체성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DMZ 문화예술공간 통'은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하므로 사전 문의를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문의: 010-2430-2119)

[붙임] 전시 작품

[붙임] 전시 작품



<그림> 전시 작품